

假髻와 步搖에 관한 研究

— 中國을 中心으로 —

忠南大 · 誠信女大 衣織科
 講師 金 容 文

目 次	
I. 序 論	2. 魏 · 晉 · 南北朝
II. 假髻와 步搖	3. 唐 · 五代
1. 假髻	4. 宋 · 明 · 清代
2. 步搖	IV. 結 論
III. 假髻의 修髮樣式	參考文獻
1. 周代 · 漢代	Abstract

I. 序 論

人間은 頭髮을 身體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 자체가 排發的體部(Erotic Zone)일뿐 아니라 여러가지 頭飾과 더불어 중요한 暗示와 象徵性을 지니고 있다. 修髮樣式은 사람의 얼굴을 강조해 주며 인상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지구상의 모든 文化는 — 특히 古代에 있어서의 — 他文化와의 접촉, 즉 고유의 전통에다 다른 문화의 전파와 이식을 통해서 새 요소를 가미하고 스스로 풍부해지면서 형성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¹⁾

인간이 언제부터 假髮을 이용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周代부터이며, 실물은 漢代의 馬王堆一號墓에서 출토되었다.

古代의 婦女는 원시시대의 被髮에서 활동에 편리하게 沈笄로 고정하였고 그 후 다양한 修髮樣式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자의 머리길이, 머리 술의 양이 美의 기준이 되어 길고 술이 많은 머리가 되도록 假髮을 사용하여 높고 크게 빗는 것을 좋아하여

高髻와 大髻의 유행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西域과의 교류가 왕성했던 唐代에는 高髻는 더욱 커진 假髻와 같이 盛行하였으며 步搖의 사용도 빈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假髻를 이용한 修髮樣式의 변천과 요인에 관심을 갖고

첫째, 假髮의 종류를 고찰하며,

둘째, 步搖의 발생과 변화를 연구하며

셋째, 假髻를 이용한 修髮樣式을 中國의 周代부터 清代까지(BC. 11C~AD. 1911年)의 변천을 고찰하고자 한다.

자료는 문헌과 유물, 회화등을 이용하였으며 구하기 곤란한 자료는 다른 학자의 연구를 재인용하게 되는 제한점을 갖으나,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로써 동북아세아의 修髮樣式의 전과경로와 요인, 우리나라와 西域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1) 金元龍(1976), 「韓國文化의 起原」, (서울: 探求堂), p.20.

II. 假髻와 步搖

1. 假髻의 종류

1) 副

「釋名」釋首飾에 “王后首飾曰副, 副, 覆也, 以覆首, 赤言副貳也. 兼用髮物, 或其飾也, 步搖上有垂珠, 步則搖動也”라고 있다. 왕후의 머리장식을 副라고 하며 머리에 덮어 씌운다는 의미이다. 步搖는 그 위에 진주등의 玉을 장식하여 걸으면 흔들린다. 즉 副는 머리를 감싸는 장식이고, 보요는 그것의 장식물이다.²⁾

王先謙集解를 인용하여 引陳祥道云…「漢之步搖, 以金爲鳳, 下有“邸”, 綴五采玉以垂下, 行動則搖」라고 설명하고 있다.³⁾

「禮記」明堂位 「副禕」의 “鄭注에 “副首飾也, 今之步搖是也”라고 있어 머리의 장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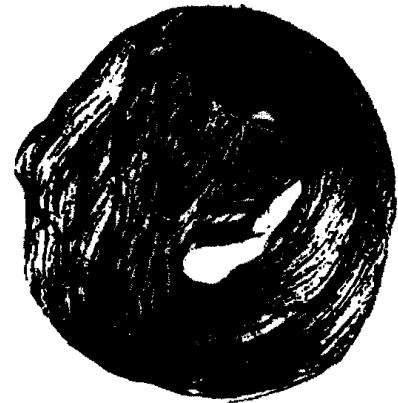
지금의 (후한의) 보요가 이것에 해당한다.

「周禮·天官」의 「追師, 掌王后之首服, 爲副…」注⁴⁾에 “鄭司農云…副者, 婦人之首服, …衡, 維持冠者. 副之言覆. 所以覆首爲之飾, 其遺像若今步搖紒” 정사농은 말하길…副는 부인의 머리에 하는 장식이 다… 정현은 말하길, 副의 의미는 덮어 씌운다고 하는 것으로 머리를 덮는 것에 장식하는 것이다. 그것의 남아있는 모습이 지금의(후한의) 보요이다.⁵⁾

「後漢書 東平憲王蒼傳」假紒에 대한 注에 “副婦人首服 三輔謂之假紒”라고 있어 副가 假紒임을 알 수 있다. 즉 副는 假紒로 만든 編髮로 그 위에 장식한 紒와 玉등의 장식물이 步搖이다.⁶⁾

漢代の 「副」의 유물은 長沙 馬玉堆一號墓에서 출토되고 있다.(圖1) 원형 소형 용기의 하나에 사람의 머리털로 만든 것이 받쳐져 이것은 225호 유책에 「貝(圓) 付雙二, 盛印副」이라고 있는 「副」에

해당하고 있다. 毛는 직경 1~2mm 정도로 묶어서 새끼줄과 같이 一端을 가지런히 하여 一例로 엮어 매어 하나로 만든다. 毛의 묶음을 엮어맨 부분을 이마에 둘러서 단단히 머리에 고정시켰을 것으로 상상되나, 보고서에 설명이 없기때문에 만드는 법, 사용방법을 상세히 알 수 없다.⁷⁾



(圖 1) 假髻

(湖南長沙馬王堆一號漢墓出土)

2) 編

周代の 婦人首飾에 관한 기록은 「周禮天官追師」에 “追師, 掌王后之首服, 爲副, 編, 次, 追衡, 紒, 爲九嬪客”의 注에 鄭玄은 “編, 編列髮爲之, 其遺像若今之假紒矣, 服之以桑也”라고 즉 編은 머리털을 엮어서 만든다. 그 남아있는 모습은 후한의 假紒라고 한다. 가계의 紒라는 것은 쪽(結髮)의 의미이므로, 머리를 땅아 엮어서 만든다고 하는 假계는 (圖 2)의 月子로 보여진다.⁸⁾

「詩經」鄘風 君子偕老⁹⁾ 副계六珈에 「傳」은 “副者, 后夫人之首飾, 編髮爲之. 玿, 衡玿也. 珈, 玿飾之最盛者, 所以別尊卑也.” 「鄭箋」에 “珈之言珈也” 副既玿而加飾. 如今步搖上飾 라고 하여 副는 后夫人의 首飾이며 編髮로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2) 林巳奈夫(1976), 「漢代の文物」, 京郡大學人文科學研究所, p.80.

3) 王宇清(1975), 「歷代婦女袍服考實」(臺北:中國旗袍研究會), p.111.

4) 「禮記」卷24 明堂位 第14.

5) 林巳奈夫(1976), 앞책, p.81.

6) 周汎, 高春明(1988), 「中國歷代婦女裝飾」(香港:三聯書店), p.49.

7) 林巳奈夫(1976), 앞책, p.81.

8) 林巳奈夫(1976), 앞책, p.82.

9) , 金學主譯, 「詩經」(서울:明文堂), pp.101-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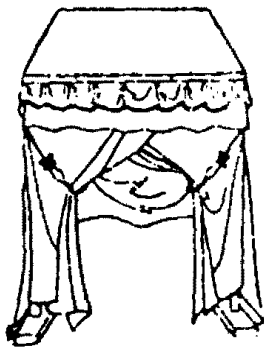


(圖 2) 假紒 長沙陳家大山

3) 次

앞에서 인용한(追師의 注에 鄭玄)은“次,次第髮長短爲之, 所謂髮髻也”(卽 髻, 服之以禮見王)¹⁰라고 즉, 次는 髮이 길거나 짧은 것을 순서있게 만든다. 소위 髮髻이다. 길고 짧은 머리를 순서가 바르게 맞춘 것으로 髮髻라고 불리는 것이 후한시대의 용어였다고 생각된다.

禮器圖의 次의 그림은 髻과 같다.(圖 3)



(圖 3) 次
(禮器圖)



古文次
(說文解字)

「釋名」釋首飾에 “次, 次第髮也, 髻鬘, 髮被也. 髮少者得以被助其髮也 鬘剔也. 剔刑人之髮爲之”라고 즉, 次라는 것은 머리털을 차례차례로 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髮髻의 髻은 덮는다는 의미이다. 머리털이 작은 사람이 덮어서 머리털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이다. 髻라는 것은剔이라는 의미이다. 죄인의 머리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만든다. 鄭玄이 말하는 髮髻는 여기에서의 髮髻이다. 「釋名」은 죄인은 이어야 하므로 머리를 깎아서 그 털을 이용하여 만든다고 하는 설명이다.

이것은 「儀禮」少牢饋食禮에 “主婦被錫, 衣移”의 注에 鄭玄이 “被錫讀爲髮鬘, 古者或剔賤者刑者之髮. 以被婦人之髻爲飾. 因名髮鬘焉. 比周禮所謂次也.”라고 즉, 被錫은 髮鬘의 의미이다. 옛날에는 혹은 신분이 천한 자나 刑者의 머리털을 깎아서 가지고 부인의 紒에 덮어 장식하였다. 그것에 의해 髮鬘라고 이름붙여졌다고 한다. 그것은 「周禮」에서 말하는 次와 같은 이야기이다. 漢에 이런 說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王后를 시작으로 하여 「儀禮」에서 주인격의 부인이 禮를 행할 때에 하는 두식이 라고 한다. 또 머리털의 길고 짧은 것을 깨끗하게 맞춘 것이라고하여 그대로 쓰는 가발의 종류이다. 한대의 유물이나 그림에서는 지금의 경우 제시할 만한 자료가 없다.¹¹

4)

髻에 대하여 「詩經」鄘風 君子偕老에 “鬘髮如雲不屑髻也”라는 詩句가 있다. 傳은 鬘이 黑髮이라고 하였고, 「集韻」도 마찬가지로이다. 「說文」에서는 鬘은 稠髮이라고 하여 머리카락이 많다는 뜻이다. 「左氏, 昭, 二十八, 生女黑髮黑, 疏」에 “鬘多長而黑美之貌也”라고 하여 머리술이 많고 길으며 아름다운 검은 머리가 구름같으니 假髮이 필요없다는 뜻이다. 부녀들이 검은색의 술이 많은 머리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²

5) 巾(巾幘)

「周禮」의 注에 “若今假紒 用鐵絲爲圈 外編以髮名曰鼓” 鼓라고도 하며 철사를 이용하여 둥글게 만든 假髻라고 한다.¹³

漢代의 太皇太后와 皇太后 發服의 머리장식은 剪髮(전리괘)으로 하였는데 머리털을 가지고

10) 王宇清(1975), 앞책, p.37.

11) 林巳奈夫(1976), 앞책, pp.82-83.

12) 「詩經」, p.102.

13) 王宇清(1975), 앞책, p.38.

실로 짜듯 만든 두건식의 머리장식 즉, 巾幘이다.¹⁴⁾ 옛날에는 「次」라고 하였고, 「被」, 「髮髻」라고도 하였다.¹⁵⁾

廣州市郊東漢墓出土의 하나는 舞용으로 머리 위에 특별히 큰 髮幘를 하였는데, 巾幘을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圖 4)



(圖 4) 漢代的巾幘
(廣東廣州市郊東漢墓出土陶俑)

明代에 張自烈 「正字通, 竹部」釋「箆」字는 소위 “婦人首飾 猶今之髮鼓”로 髻은 부인의 首飾이며 假髻이다.

위에서 말한 假髻는 일반 본인의 頭髮 위에 첨가하여 풍부한 髮髻로 만드는 귀한 부녀의 장식이다.¹⁶⁾

2. 步搖

보요는 頭飾의 일종으로 古代 부녀의 중요한 首飾이다. 簪, 釵의 기초 위에서 발전하여 형성된 것이다.¹⁷⁾

보요는 「釋名」 “步搖上有垂珠, 步則搖也”라고 걸을 때 구슬이 흔들린다고 하였다.¹⁷⁾

보요는 太康年間에 북방에서 河北지방에 들어간 선비족의 一族 慕容部의 舊俗에서 배웠다고 하지만, 이미 「吳志」后妃傳에 “使尚方以 金作華燧步搖 假髻以千數”라 있어, 三國時代에도 官廷夫人 사이에는 행하여졌던 것이다.¹⁸⁾

西漢시대 보요의 모습은 湖南에 있는 長沙 馬王堆一號漢墓에서 出土된 帛畫에 반영되어 있다. 그림 위의 한 貴婦는 머리 위에 보요를 꽂고 있으며, 보요 위에 玉珠가 많이 달려있다.²⁰⁾(圖 5)



(圖 5) 西漢의 步搖
(長沙 馬王堆一號墓)

東漢이후는 「後漢書」輿服志²¹⁾에 皇后 謁廟服의 보요가 대단한 장식이라고 하였다. 황금을 가지고 산머리 모양을 만들어 흰 玉을 꿰어 계수나무 가지가 얽힌것 같은 모양을 만든다. 하나의 爵과 9개의 華勝, 六獸는 熊, 虎, 赤熊, 天鹿, 辟邪, 南山豐 등의 짐승 모양으로 모두 비취색의 털로 만든다.

14) 張末元著·金英淑譯(1984), 「漢朝服裝圖樣資料」(서울:東洋服飾研究院), pp.82-84.

15) 王宇清(1975), 앞책, p.38.

16) 周汎, 高春明(1988), 앞책, p.49.

17) 周汎, 高春明(1988), 앞책, p.56.

18) 杉本正年(1984), 「東洋服裝史論攷: 中世編」(東京:文化出版局), p.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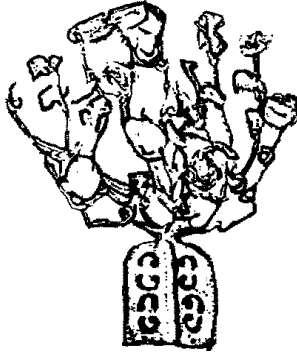
19) 杉本正年(1984), 앞책, p.31.

20) 周汎, 高春明(1988), 앞책, 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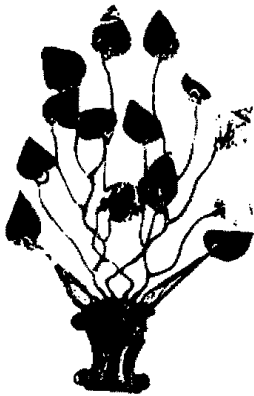
21) …假髻, 步搖, 簪耳, 步搖以黃金山題, 貫白珠爲桂枝相縈, 一爵九華, 熊虎赤熊, 天鹿辟邪, 南山豐大特六獸, 詩所謂副笄六珈者, 諸爵獸皆縈烈爲毛羽 金題白珠 縈繞以 翡翠爲華.

「北堂書鈔」 및 「太平御覽」에는 “人爵九華” 爵은 雀이고 華는 花이다. 金, 玉을 가지고 만들어 봉황과 꽃으로 장식한 것이다.

遼寧北票, 房身出土의 보요는 金으로 만들었고, 五代의 鈿步搖는 더욱 장식화 되었다.²²⁾(圖6-①, ②, ③)



(圖 6-①) 步搖 北票房身



(圖 6)-②) 金步堆 (北朝)



(圖6-③) 金玉步搖 (五代)

「晉書」輿服志에 “皇后… 首飾則假髻步搖, 俗謂之珠松是也”라 하였으므로 珠松은 보요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²³⁾

顧愷之의 「女史箴圖」에 여자가 머리위에 장식품을 얹고 있는데 이것이 보요이다.(圖 7)

魏晉時代는 漢代보다도 오히려 화려하고 아름답게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²⁴⁾



(圖 7) 副와 步搖
(晉의 女史·圖)

「有女篇」에 “頭安金步搖(一作首戴)…”라 하여 金으로 보요를 만들었으며, 范曄의 「咏步搖花」中에 “珠華繁翡翠 寶葉間金瓊, 剪荷不以製, 爲花如自生, …”라 하여 보요의 제작과 그 움직이는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보요로 인하여 위의 구슬이 늘어지게 달리고, 다시 비취, 금, 옥 장식을 가한 것으로 걸을 때의 움직임에 따라 아름다움이 생겨난다고 하였다.²⁵⁾

唐의 簪花仕女圖의 婦女는 蓬髻義髻에 金翠步搖를 위에 꽂고 있으며, 꽃도 꽂고 있는데 이는 특별히 宋代에 유행한 것이다.²⁶⁾ 懿德太子墓의 宮中女官은 금, 은, 보요를 앞뒤에 꽂고 있다.(圖 8)

보요는 假髻의 풍속과 같이 원래 北方遊牧民族의 습속이었으나 魏晉이후 後漢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唐代 婦人들에게 있어서 步搖가 金監을 이룬 것도 西域胡俗에서 받은 영향 때문이다.²⁷⁾(圖 9-① ②)

22) 周汎, 高春明(1988), 앞책, p.57.

23) 杉本正年(1984), 앞책, pp.31-32.

24) 杉本正年(1984), 앞책, p.22.

25) 周錫保(1989), 「中國古代服飾史」(台北:南天書局有限公司), p.150.

26) 沈從文(1988) 「中國古代服飾研究」(台北:南天書局有限公司), p.220.

27) 杉本正年(1984), 앞책, p.199.



(圖 8) 步搖冠 (懿德太子墓)



(圖 9-①) 步搖
(扶西乾縣唐李重潤墓)



(圖 9-②) 步搖
(陝西乾縣唐李仙惠出土石刻)

Ⅲ. 假髻의 修髮樣式

1. 周代(B.C. 11C~B.C. 770年) · 漢代(B.C. 206~A.D. 220年)

「周禮」의 天官追師에 副, 編, 次로 首飾을 한다고 하였으며 鄭玄은 이것이 머리를 땀아 엮어서 만든 月子로 보여진다고 했다.

王宇清은 周代에 三翟용으로는 副를 鞠衣에는 編을, 展衣에는 次를 하는데 加冕은 짜아 엮어서 大髻를 만든다고 하였다.²⁸⁾

漢代의 상류부인에게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크게 나누면 高髻, 垂髻로 나눌 수 있다. 앞서 말한 剪髮幘, 假髻, 大手髻 등은 모두 高髻에 이용되는 鬢 즉, 假髻이다. 자신의 머리가 풍부한 여성은 이것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四起大髻, 三角髻 등도 高髻의 일종이다.²⁹⁾(圖 10)



(圖 10) ① 太后 ② (顧愷之의 女史箴圖)
(漢朝 服裝圖樣資料)

2. 魏 · 晉 · 南北朝(A.D. 220~588年)

1) 命婦의 修髮

「晉書」輿服志에 首飾으로 假髻步搖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文獻通考」에는 貴人은 大手髻, 蔽髻와 보요로

28) 王宇清(1975), 앞책, p.86.

29) 杉本正年(1984), 앞책, p.142.

장식한다고 하였다. 역시 假髻이다³⁰⁾(圖 11-①, ②, ③)

머리형이 차츰 大型의 것으로 되고 그 때문에 假髻에 쓰이는 많은 사람의 머리가 필요했다. 緩髻이라고 칭하는 완만하게 묶어올린 머리나 앞머리가 이마에 늘어진 것도 있다.³¹⁾



(圖 11-①) 北魏의 隋倭髻
(洛陽市 郊赤寧寺出土混塑)



(圖 11-②) 十字髻
(北魏西安草場城)



(圖 11-③)
(東晉의 女史箴圖)

南朝는 크게 髻와 步搖로 나눌 수 있으나 최고로 유행한 修髮樣式은 高髻였다.³²⁾(圖 12)

北齊의 皇后, 首飾은 髻步搖十二鐔이며, 命婦의 蔽髻는 花釵의 수효가 品秩에 따라 다르므로 假髻와 장식비녀에 따라 지위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³³⁾

2) 一般婦女的 修髮

「晉令」에 “士卒百上, 不得假髻”라고 하여 假髻의 사용에 제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⁴⁾

南北朝 婦女的 髮式은 高大한 쪽으로 발전해 나갔다. 「晉書·五行志」에 “太元中 尙婦女, 必緩髻傾髻以爲盛飾, 用髮既多, 不同恒戴, 乃先於木及•上裝之, 名曰假髻, 或曰假頭…” “假頭套”은 木圓頭上의 옛날 法이며 높은 假頭套를 필요로 했다.

「宋書·五行志」에는 飛天紒라고 하는 高髻가 유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北齊는 髮飾을 다름없이 좋아했으며, 假髻는 南朝와 같은 것이다.(圖 13) 「北齊書 幼主記」에 “婦人皆剪剔以著假髻, 而危邪之狀如飛鳥, 至於南面則髻心正西, 始自宮內, 被之四遠”이라고 하여 부인들이 모두 假髻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창작하여 修髮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⁵⁾

30) 周錫保(1989), 앞책, p.147. “魏制貴人, 夫人以下, 皆大手髻, 七鐔蔽髻… 其公主得有步搖, 簪泐”, “因前制, 皇后首飾假髻, 步搖, 簪珥 ; 開國公, 侯太夫人, 夫人 大手髻, 七鐔蔽髻 …”

31) 杉本正年(1984), 앞책, p.32.

32) 杉本正年(1984), 앞책, pp.55-56.

33) 周錫保(1989), 앞책, p.147.

34) 周錫保(1989), 앞책, p.147.

35) 周錫保(1989), 앞책, p.149.



(圖 12) 南朝의 雙髻 (洛神賦圖)



(圖 13) 北朝 ①



② (司馬金龍墓)

3. 唐·五代(A.D. 618~960年)

「唐書 五行志」에 “貴婦以假髻爲首飾，曰 義髻”
귀부인은 假髻로써 首飾을 하는데 옛날에는 假髻라
하였고, 唐에서는 義髻라고 하였다.³⁶⁾

「楊太眞外傳」에 기록하길 “妃는 늘 假髻로써
首飾을 하고 黃裙을 좋아한다”고 하였다.³⁷⁾ 「唐書
五行志」에 “義髻拋河裏, 黃裙逐水流” 義髻는 강을
이루고 黃裙은 물을 따라 흐른다고 말해서 당시
양귀비 가발의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다.

양귀비(楊貴妃)는 일종의 假髻인 義髻로써 首飾
을 하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역시 얇은 목재로 만든
髻式으로 거기에 보석이나 구슬을 달거나 그림을
그렸다. 최근의 신강 吐魯番 阿那塔那 출토의 木髻
와 같은데 髻는 역시 假髻이다.

唐代婦女의 義髻는 그림과 雕소中에 나타나 있
고, 實物이 발견되었다. 新疆吐魯番 阿斯塔那張雄夫
婦墓에서 出土된 一件은 本質로 된 義髻로 半翻髻
와 같은 모양이며, 겉은 검은색漆이 되어있다. 죽은
사람이 生前에 사용하던 것이다.(圖 14-①) 같은
묘에서 출토된 女俑의 머리위에 정교한 花紋을
그린 義髻적인 模型의 髮髻를 하고 있다.(圖 14-
②)



(圖 14-①) 木質義髻
(新疆吐魯番斯塔那唐張雄夫婦墓)



(圖 14-②) 義髻
(新疆吐魯番斯塔那唐張雄夫婦墓 泥俑)

新疆 吐魯番 唐墓에서 出土된 일종의 假髻는
紙質이며, 겉은 髻하고 花紋을 그려 넣었다. 발굴

36) 沈從文(1988), 앞책, p.213.

37) 周汎·高春明(1988), 앞책 p.50.

보고서에는 “紙冠”이라고 하였으나 실은 일종의 義髻이다.(圖 14-③)



(圖 14-③) 紙質義髻
(新疆吐魯番唐墓)



(圖 14-④) 五代的義髻
(江蘇南京南唐二陵出土陶俑)

江蘇南京南唐二陵출토의 陶俑中에 義髻를 한 婦女가 있다.³⁸⁾(圖 14-④)

「唐會要」에 의하면 金銀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이유로 高髻를 일시 금지하였으나 없어지지 않고 후에 다시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³⁹⁾

周昉의 簪花仕女圖에 나오는 여인들은 假髻를 이용하여 크게 빗고 步搖를 꽂고 있어 唐代의 服飾이 西域의 영향으로 풍만한 느낌을 주는 것과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圖 15)

唐代 부녀의 修髮樣式은 매우 다양하였다. 初唐 때는 비교적 간단하였으나, 太宗에 이르러 더욱 풍성해지며 天寶이후에는 假髻(義髻)가 유행하여 晚唐·五代까지 高髻에 보이나 각종 花髻를 꽂아서 장식하였다.⁴⁰⁾(圖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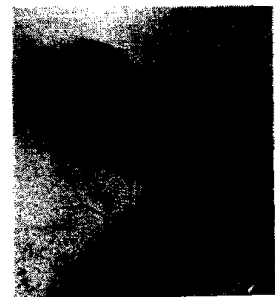
五代的 高髻는 唐과 비슷하나 뒤로 경사진 모습이 다른 점이다.⁴¹⁾ 敦煌莫高窟의 供養人은 머리를 크게 빗고 장식 비녀를 많이 꽂고 있다. 玉步搖仕女圖의 여성은 머리를 높게 빗은 후 장식한 모습이 다.(圖 17)



(圖 15) 簪昉의 簪花仕女圖



① 初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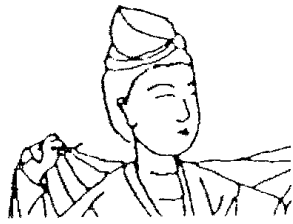
② 685年

38) 周汎·高春明(1988), 앞책, p.50.

39) 杉本正年(1984), 앞책, p.195.

40) 周汎·高春明(1985), 「中國服飾五千年」(香港:學林出版社), p.77.

41) 周錫保(1989), 앞책, pp.262~268.



③ 706年



④ 723年



⑤ 752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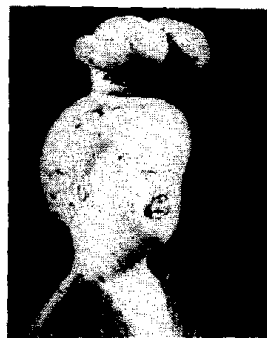
⑥ 713-756年



③ (玉步搖任女圖)



⑦ 西安唐墓 (圖16)
唐의 高髻



⑧ 河南洛陽 關林第59號



①
(圖17) 五代的 高髻



② (敦煌石窟供養)

4. 宋·明·清代(A.D. 960~1911年)

宋代的 婦女는 唐·五代的 遺風을 이어 高髻를 좋아했다. 福建 福州 南宋墓에서 高髻의 실물이 출토되었다.⁴²⁾(圖 18-①, ②)

明初에는 宋의 양식을 이어받아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그 후 將髮髻를 원형으로 만들어 그것이 높아져 말기때에는 하나의 大髻를 만들었다. 일종의 假髻가 쓰였고 “髻(jū 揪)髻”라고 하여 부녀들이 늘 사용하던 髮飾으로 옛날 모습을 본따 일반은 철사로 환을 만들어 바깥쪽에 가발을 놓는다. 소위 “鼓”라고 하는 것이다.⁴³⁾(圖 19)

清代 婦女 역시 假髻를 하는 習俗이 있다. 비교적 전형적인 滿族 婦女의 旗髻이다.⁴⁴⁾(圖 20)

清代 婦女의 髮飾에는 滿과 漢의 두 양식이 있다. 漢族양식은 淸의 중엽까지 있었으며, 高髻로 소위 “叉子頭”라고 불리던 것이다. 滿族 貴婦女의 髮飾은 鈎子로 장식을 하였다. 그 후 “一字頭”로 편평해 졌다.⁴⁵⁾

淸의 初에는 明式을 이어서 包頭를 하였다. 牡丹頭 역시 일종의 高髻이며, 高髻에는 假髮이 이용되며, 윤택함과 풍부함을 더하게 된다. 中期에는 長髻가 유행하였으며, 末期에는 간단하게 말아 엮는 修髮이 애호되어 假髮의 사용은 줄어들게 되었다.⁴⁶⁾

42) 周汎·高春明(1988), 앞책, p.23.

43) 周汎·高春明(1985), 앞책, p.146.

44) 周汎·高春明(1988), 앞책, p.50.

45) 周汎·高春明(1985), 앞책, pp.172-173.

46) 周錫保(1989), 앞책, p.499.



(圖 18-①) 宋代婦女高髻實物
(福建福州南宋黃昇墓)



(圖 20) 清的髻髮
(清孝貞頭皇后常服像)

VI. 結 論

우리나라에서盛行한假髻를 사용한高髻에 관한先行研究로 중국을 중심으로 여성의假髻와步搖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假髻는 副, 編, 次, 髻, 幘으로 나눌 수 있다. 副는 后夫人의 首飾이며 보요로 장식을 한다. 編은 머리털을 땀아 엮어서 만드는假髻이다. 次는 髮의 길이를 순서대로 맞추어 만든 것으로 髮髻, 被錫이라고도 하였다. 幘이나 신분이 천한 사람의 머리를 깎아서 차례대로 만든 것이다. 髻는 다리라는 의미로 머리술이 많고 검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幘은 머리털을 가지고 실로 짜듯 만든假髻로 철사를 이용하여 둥글게 한다. 옛날에는 次, 被, 髻라고도 하였다. 계급과 용도에 따라서 다른假髻를 착용하였는데, 副, 編, 次 순서이다. 假髻의 유물이 漢大馬王髻一號墓에서 出土되었다.

2. 步搖는假髻와 같이 원래北方遊牧民族의 습속이던 것이後漢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珠松이라고도 하였다. 漢代이전에 冠에 단步搖와는 의미가 다르다. 魏晉時代에는 더욱 아름다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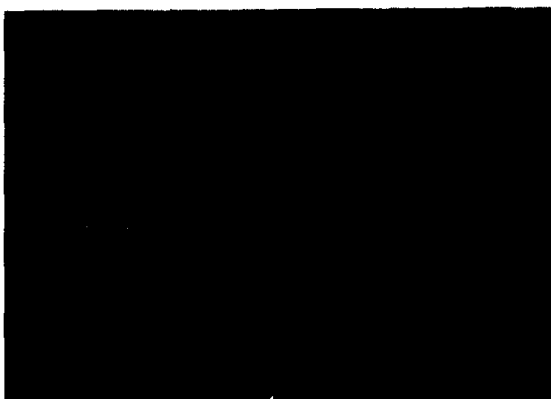
보요는唐代의 婦人들에게 있어서 全盛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唐代에西域과의 교류가 빈번하여西域胡俗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3. 假髻를 이용한 修髮樣式을 시대별로 研究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表 1>

시대마다 명칭이 다르고 재료도 사람의 머리털, 黑絲, 木質, 紙質등을 사용하였다.



(圖 18-②) 宋의 朝天髻



(圖 19) 明的 牡丹頭
(明人《縫衣圖》局部)

② 明的 假
(仙女圖)

계급에 따라서 假髻 종류의 사용이 차이가 있어 일반에게 금지했으나 후에 다시 유행하였다.

假髻는 중앙아시아에서도 많이 사용한 것으로 西域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唐代에 절정을 이룬

다.

문헌에는 周代에서 清代에 이르기까지 高髻의 유행은 대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漢代와 宋代의 유물이 出土되었다.

〈表 1〉假髻를 이용한 修髮樣式

시대 修髮 년도	周 (B.C.11C~B.C.770)	漢 (B.C.206~A.D.220)	魏晉南北朝 (A.D.220~588)	唐 (A.D.618~907)	五代 (A.D.907~960)	宋 (A.D.960~1279)	明 (A.D.1368~1644)	清 (1644~1911)
假髻	副編次	大手髻 假髻 剪髮	蔽髻 假頭髻	義髻	義髻	特髻	髮髻 鼓	旗髻
修髮樣式	大髻	四起大髻 三角髻	大手髻 飛天髻	高髻 倭髻 回鶻髻	高髻	朝天髻 同心髻 流髻	牡丹頭 鉢盂頭 髮監扁髻	叉子頭 一子頭
비고	계급에 따라 다른 假髻의 사용	副의 유물: 馬王堆-號墓 東漢때: 髻를 많이 껴음	南朝때 불교 영향으로 飛天髻 성행	步搖의盛行	連花冠·戴道冠. 金鳳을 사용	高髻 실물 자료가 出土 花꽃는 풍습		

參 考 文 獻

「詩經」, 宋志英譯, 民音社, 1976.
 「禮記」, 保景文化社, 1984.
 「後漢書」, 芸文印館.
 金元龍(1976), 「韓國文化的 起原」, 서울: 探求堂.
 杉本正年(1984),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杉本正年(1984), 「東洋服裝史論攷: 中世編」, 東京: 文化出版局.
 沈從文(1988), 「中國古代服飾研究」, 台北: 南天書局有限公司.
 王宇清(1975), 「歷代婦女袍服攷實」, 台北: 中國旗袍研究會.
 張末元著 / 金英淑譯(1984), 「漢朝服裝圖樣資料」,

서울: 東洋服飾研究院.
 周錫保(1989),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南天書局有限公司.
 周汎·高春明(1985) 「中國服飾五千年」, 香港: 學林出版社.
 周汎·高春明(1988), 「中國歷代婦女裝飾」, 香港: 三聯書店.
 中華五千年文物集刊(1986), 「服飾編上·下」, 台北: 裕台公司.
 林巳奈夫(1976), 「漢代の文物」,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陝西省博物館編(1990), 「隋唐文化」, 香港: 學林出版社.
 湖南省博物館編(1973), 「長沙馬王堆一號漢墓上·下」, 北京: 文物出版社.

ABSTRACT

A study of the wig and the Boyo

—Centering on China—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oong Nam Univ

Sung Shin Women's Univ

Instructor KIM YONG MO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es in the wig and the Boyo are as follows. The wig is to be classified into Bu(副), Pyun(編), Chah(次), Cheh(髻), and kwik(韓國), Bu is an ornamental hairpin used by the empress, and it is decorated with Boyo. Pyun is a wig made of braided hair. Chah is made of Bal which is put together by its length, and it was also called Picheh or Pisuck. It is made, one by one, of hair of the convicts and the low-class people. cheh has a meaning of toupee, and it is used to look beautiful with its thick black hair. Kwik is a wig made of hair as if it is weaved out of thread, and it is rounded with a wire. In ancient times, it was also called chah, Pi(被), or Pi(髻) People wore different wigs according to their class and the use, in order of Bu, Pyun, and Chah. There are remains of the Han Dynasty.

Boyo, just like the wig, was originally a custom of the northern nomadic tribes which had been introduced to the later Han Dynasty. It is also called Choo Song and has a different meaning from the Boyo attached to a crown before the

Han Dynasty. It became much more beautiful in the Wuchin period. Boyo gained its popularity by the women in Tang Dynasty, which is due to the influence by the customs of the western Ho tribe.

The name of hairstyling using wigs in each period, and things such as hair, black thread, lignum, and paper were used as materials.

Since the wig had differed according to the disparity in social standing, it was prohibited to the general public, but it became in style later on.

Wig also becomes popular in central Asia and gained its prosperity in the Tang Dynasty which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western countries.

It is said in the records that the kobal Style had been exceedingly in fashion from the Ju to the Chung Dynasty, and the remains of the Han and Song Dynasty were found.

times, it was also called chah, Pi(被), or period, and things such as hair, black thread, lignum, and paper were used as materials.

Since the wig had differed according to the disparity in social standing, it was prohibited to the general public, but it became in style later on.

Wig also becomes popular in central Asia and gained its prosperity in the Tang Dynasty which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western countries.

It is said in the records that the kobal Style had been exceedingly in fashion from the Ju to the Chung Dynasty, and the remains of the Han and Song Dynasty were found.